

## 민화작가 남정예의 소박하고 해학 가득한 아름다운 채색 감성을 새롭게 자극하고 행복의미 반추하게 하다

글, 사진 권동철 이코노믹리뷰 문화전문기자

지혜와 풍요의 상징 '토끼'의 신묘년(辛卯年) 새해 아침이다. 이웃과 덕담을 나누고 설 즈음이면 웃놀이며 널뛰기며 연날리기 등 겨울 놀이를 즐긴다. 추위도 아랑곳없이 이 낙천적인 흥(興) 많은 민중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생겼는 걸까. 바로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에 순응하는 심성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예부터 오늘에 이르러까지 소망과 기원을 소통시켜 온 민화에 그러한 상징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기도 하다.



해학반도도

민화는 일상에서 부르는 나의 노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작가의 작업실에는 대작을 많이 그린 그녀의 방대한 작업량을 대변하듯 커다란 작업대가 펼쳐져 있다. 그녀의 그림에는 기쁨과 그리움과 가장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들이 담겨 있다. 지방의 박물관 등 민화강좌에 열정적으로 다니고 또 '남정예 민화연구원 원장이기도 한 작가'는 '민화는 일상에서 부르는 나의 노래이다'라고 말했다.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했으며 민화의 이론과 실기 및 정신을 널리 보급한 공로로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정예 민화전(인사아트센터) 등 개인전을 7회 가졌다.

### 민족정신과 정체성 각인

민화(民話)는 원초적이고 사머니즘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서민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생활상과 공동의 희로애락 사상을 반영하며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혹은 액운을 막기 위한 기복(祈福)을 상징한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집단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생(生)의 가장 화려한 날인 초야(初夜)의 흥분도 화조도(花鳥圖)가 있어 더욱 황홀했다. 그런가 하면 후손으로서 고마움과 못다한, 그 간절한 정성의 제사상을 감싸는 산수병풍의 풍경은 어린 눈에 장엄한 산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이라는 존재감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혼(魂)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리라.

### 잠재된 고유 미의식 환기

작가는 민화를 전통 속에서 모티브를 찾아 조형적 미감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변용시켜 보다 친숙하게 보여주려 애쓴다. 넘치는 기쁨과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 작품 '소나무' 위로 아득한 태산과 구름을 그려 넣었고 아래로 심오한 바다 속을 꿈꾸며 서기(瑞氣)를 내뿜는 거북을 표현하여 끝없는 깊이와 내면의 심상을 투영한다. '모란'은 인간이 가진 생명력을 자극하고 잃어버린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여성성이 가진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거침없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 액을 쫓아주는 '호랑이'의 귀엽고 익살스런 표정과 화려한 모란꽃의 밝은 색채와 형태는 현대적 감각으로 즐거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 옛날 이야기보따리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의 작품세계는 감성을 새롭게 자극하고 행복의 의미를 반추하게 하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고유의 미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 우리 이끌고 미래로 향하다

주제나 표현의 자유로움과 원색의 강렬한 대비와 과장되거나 대범함 등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는 화면. 민화는 과거의 시간과 공간 속에 현재의 우리를 서게 함으로써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의 나래를 꿈꿀 수 있도록 과거의 우리를 이끌고 미래로 향한다. 어린 시절의 동심을 추억하도록 하거나, 때로는 화려하며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기도 하는 상상의 에너지가 있는 민화 속에서 새해 설계를 그려 볼 일이다.